



코스피	2106.10 (+8.92)	코스닥	693.38 (+2.99)
금리 (연이자율)	1.80 (+0.01)	환율 (원/달러)	1120.10 (-0.60) (16일)



[뉴스]
제주서 사라진 예멘인
뿔뿔이 흩어져
공장 취업
02

120조 반도체 클러스터 어디로

용인 이천 vs 청주 구미

국민청원까지 동원 '불꽃 유치전'

용인
인력수급 무난, 입지도 탁월

이천
하이닉스 인접 인프라 탄탄

청주
균등 내세워... 충북도 가세

구미
공동화 위기감에 청원까지



용인이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이름에도 용인시는 적합하다는 평가다. 용인은 삼성전자 기흥공장을 갖고 있는 데다,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과 이천 등과도 멀지 않다. 인프라도 이미 충분히 조성된만큼 효율성도 높다.

이천시도 용인시와 비교해 크게 뒤지는 입지는 아니라는 분석이다. 용인시와 마찬가지로 서울과 멀지 않고, 이미 SK하이닉스 본사와 M14와 M16이 위치해 있어서 인프라도 충분하다.

그러나 청주시와 구미시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주요 산업이 수도권으로만 자리를 잡는데 따른 불만이다.

청주시는 지역 균등 발전을 내세우며 SK하이닉스 M15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어필하고 있다. 충청북도도 힘을 합쳐 유치 총력전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시는 가장 애절한 모습을 보인다. 구미 지역 기업으로 알려진 삼성전자가 최근 네트워크 사업부와 자회사 삼성 메디슨을 철수하기로 하면서 기반 산업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 구미

시는 2003년에도 LG디스플레이가 과주로 이전하는 등 산업 유출을 겪어왔다.

구미시는 16일 대구시와 손을 잡고 유치를 위한 전략을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 경제단체인 대구상공회의소, 구미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등도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적극적인 구애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구미시민들도 SK본사를 방문하는 등 공동행동을 추진 중이고, 지난 3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42만 구미시민을 대표해서 간절히 국민청원을 올립니다'는 내용으로 글을 올려 1만7000여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아직 구미시가 구체적인 지원책을 발표하지는 않은 상태다. 다만 대규모 산업단지를 비롯해 세제혜택 등 파격적인 조건을 준비중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비용과 인력 등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용인과 이천 등 경기도권이 유력하고, 충청도 파격적인 선택일 수 밖에 없다"며 "정부의 정치적 입장과 구미시가 어떤 지원 조건을 내걸지가 변수이긴 하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19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연협뉴스

한진에 칼 빼든 국민연금 조양호 경영권 위협받나

(한진그룹 회장)

스튜어트십코드 첫 사례

국민연금이 한진그룹에 대한 주주권행사 여부를 늦어도 2월 초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오는 3월에 예정된 대한항공·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칼 회장의 이사 연임 안건 등에 국민연금이 어떤 입장을 취할 지 결정기로 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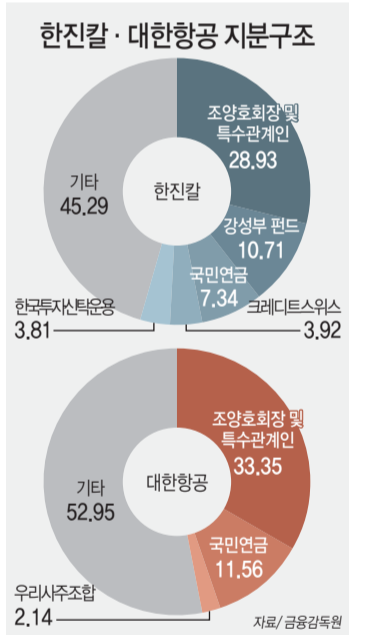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나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당부한 만큼 국민연금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관심이 모아진다. 만약 국민연금이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이는 스튜어트십 코드(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으로 경영 참여가 이뤄진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6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2019년도 1차 전체회의를 열고 기금위 산하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는지 대한 검토를 맡기고, 보고토록 했다.

이번 기금위는 국민연금이 스튜어트십코드를 도입한 이래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변호사) 등 기금위원이 관련 안건을 요청함에 따라 열린 첫 회의였다. 오는 3월 대한항공·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이 어떠한 주주권·의결권을 행사할지에 관해 미리 합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 따라 기금위는 수탁자책임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주주권행사 이행 여부와 방식을 2월 초까지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수탁자책임위는 기존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자문하던 의결



권행사전문위원회를 확대·개편한 조직으로, 황령·배임 등 대주주 일가와 경영진의 사익 편취 행위, 저배당, 계열사 부당 지원 등 주주 가치 훼손 행위에 대해 주주권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며 "올해는 수탁자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실질적인 첫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양호 회장의 경영권이 3대 주인 국민연금 손에 달린 만큼 국민연금이 처음으로 스튜어트십코드를 행사할 것인가에 대해 이목이 쏠린다. '땅콩 회항, 물컵 갑질, 폭언 폭행, 배임 혐의' 등 한진그룹 오너십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 정책과 투명한 지배구조 개선 등을 요구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2면에 계속) /양성문·김희주기자 ysw@

'백년가게' 을지 OB베어도 쫓겨난다

노가리골목의 터줏대감
젠트리피케이션 영향에
임대료 소송준비 등 위기



1980년 문을 연 후 40년 가깝게 한 자리를 지키며 서울 '을지로 노가리 골목'이 있게 한 을지OB베어 모습. 백년가게와 서울미래유산이란 글씨가 가게 앞에 선명하게 보인다. /김승호 기자

'백년가게' 중 하나인 서울 을지로 노가리골목의 터줏대감 을지OB베어가 40년 가까이 지켰던 자리를 내줄 위기에 처했다.

백년가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하지만 정부가 현판을 내걸고 흥종학 장관까지 나서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선 백년가게도 소위 '젠트리피케이션'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을지OB베어는 현재 임대료를 올려달라는 건물주의 요구를 놓고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을지OB베어는 중기부가 지난해 8월 당시 처음으로 선정, 발표한 백년가게 16곳 중 하나다.

중기부는 이곳을 백년가게로

지정하면서 ▲오픈 당시의 맥주 안주인 노가리, 번데기, 쥐포, 멸치를 지금까지 유지하면서 사업 중인 전통 맥주집 ▲냉장숙성방식으로 특별한 맥주 맛을 유지 ▲노가리 맥주 안주를 장기간 유지해온 노가리 골목의 오랜 맥주집이자 전국적으로 노가리 열풍이 불게 한 맛집으로 평가했다.

을지OB베어는 황해도 출신인 강효근씨가 1980년 당시 생맥주

체인점인 OB베어의 서울 2호점으로 문을 연 곳이다. 지금도 간판에는 OB베어의 상징인 과란색 곰의 모습과 'SINCE 1980'이란 글씨가 오랜 역사를 가능케 한다.

을지OB베어가 무엇보다 돋보이는 것은 오랜기간 한 자리를 굳게 지키면서 도심의 골목 상권을 화려하게 부활시켰다는 점이다.

을지OB베어를 시작으로 주변 골목에 지금까지 10곳이 훌쩍 넘

는 노가리 생맥주집이 생기면서 '을지로 노가리 골목'을 형성, 하루에도 수 백명의 애주가들이 이용하는 명소가 됐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2015년에 을지OB베어와 골목을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또 매년 5월 중순엔 '을지로 노가리 호프 축제'가 열려 골목 전체가 불야성을 이루기도 한다.

가게 앞에서 노가리를 굽고 있던 강씨는 "건물주가 그동안 받았던 임대료의 두배를 요구해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을 하고 있다"면서 "30년이 훌쩍 넘는 시간을 지키며 이곳에서 장사를 해 왔는데, 요구하는 임대료를 올려준다고 했어도 이미 임대차 기간이 끝난 터라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주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면도로에 위치한 노가리골목내 점포들의 경우 1층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가 300만~400만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2면에 계속) /김승호 기자 bada@